



전국 최초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단행한 광주 광산구가 지난 2011년 3월 정규직 전환 직원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광주·전남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생활임금제를 도입한 민형배(왼쪽) 광산구청장이 지난 2015년 7월 국회에서 열린 '생활임금제 확산을 위한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하는 모습.

문재인 정부-광산구 '딛은꿀 정책' 눈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생활임금 도입 삶의 질 높이기 사회적 기업·협동조합·공유경제 육성·지원 등 비슷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과 함께 공공부문 비정규직 '체로'를 약속하면서 새 정부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정부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공공기관 간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 실태조사를 지난 15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의 광산지역민들은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정책에 지지의사를 보내면서 "익숙한 광경"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는 광주 광산구가 민선 5기부터 지금까지 추진해온 정책 상당수와 '딛은꿀'이기 때문이다.

규직 전환을 단행했다. 이 정책으로 광산구는 지금까지 120명을 고용이 보장된 정규직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광산구의 전국 최초 정규직 전환은 연쇄반응을 불렀다. 국회사무처를 비롯한 전국의 공공기관과 지자체들이 광산구 방문해 벤치마킹했다. 급기야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2년 1월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을 발표했다. 이것은 광산구가 한 해 전 제정한 규칙과 거의 흡사해 눈길을 끌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중앙·지방정부, 공기업 등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는 모두 8만4000여명에 이

른다. 6년 전 광산구가 뜬 물꼬가 전국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을 불려온 것이다. 이 물결은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확산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딛은꿀2-최저임금 아닌 생활임금으로 삶의 질 향상> '양질'의 일자리는 고용안정과 함께 급여가 결정한다. 문 대통령도 이점을 인식해 "최저임금보다 더 높게 생활임금을 책정하겠다"고 공약했다. 생활임금은 임금 통제 수단으로 약용되는 최저임금에 대한 반성으로, 생활안정과 교육, 문화, 주거 등의 분야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의 기반이 되고 있다. 광산구는 지난 2014년 광주·전남 지자체 중 최초로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했으며, 올해 광산구 생활임금은 시급 8600원이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최저임금

대비 132% 높은 179만7400원으로 전국 공공기관 최고액이다. 현재 광산구는 한시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노동자,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직원 등 108명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딛은꿀3-비정한 자본주의 사회적 경제로 순화>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단행한 청와대 비서실 조직에 사회적경제비서관을 신설했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공유경제 등을 육성·지원하는 역할로, 사회적경제를 새 정부의 아젠다로 설정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광산구는 2010년부터 일찌감치 사회적경제 기반을 다져왔다. 행정의 개입은 자제하고 사회적경제 주체가 자치와 민주주의의 원리로 활동하도록 교육, 컨설팅 등을 제공했다. 덕분에 이는 '전국 최초' 기록으로 이어졌다. 광주어용신협과 업무협약을 맺

어 정책자금을 저리로 융자하고, 공간·교육·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협동조합의 집 개소가 대표 사례로 꼽힌다. 이런 지원에 힘입어 청소노동자들이 전국 최초로 협동조합을 설립해 해고 위기를 극복하고, 더불어락 노인복지관 어르신들이 광주 1호 협동조합을 만들어 노인 일자리와 복지를 스스로 해결하고 있다.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이 같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35개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회장으로 지난 3월 취임했다. 민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의무구매 확대 ▲돌봄·육아 등 공공서비스에 사회적경제 우선 참여 ▲사회적경제에 의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목표로 발표했다. 사회적경제를 주요 아젠다로 다루겠다는 새 정부가 제시한 정책과 정확히 일치한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 보좌 문재인 대통령·민형배 청장 인연 주목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의 관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두 사람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보좌한 인연이 있기 때문이다. 민 구청장은 지난 2006년 청와대에 행정관을 거쳐 사회조정비서관으로서 당시 문재인 비서실장과 함께 일했다. 지난해 치른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호남 참패는 역설적으로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결속시켰다. 광주에서 현역 국회의원이 전무한 주요의 상황에서 지역민심과 요구를 파악하는 통로로 민 구청장이 역할이 컸던 것

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 문 대통령은 광주를 방문할 때마다 민 구청장을 자주 만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두 사람은 만나서 단순히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만 나누지 않았다. 지역에서 시민과 행정이 함께 이룬 혁신 사례의 성과를 직접 보고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을 모색한 것. 2015년 11월 문 대통령이 더불어락 노인복지관을 찾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광산구 득표율이 광주 자치구 중 가장 높은 64.5%를 기록한 것도 두 사람의 남다른 관계에서 그 출발이 썩었다는 분석이 힘

을 얻고 있다. 강자독식 시장경제를 바로잡을 수단으로 문 대통령이 '사회적경제'를 들고 나온 것도 민 구청장의 입지를 강화시켜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민 구청장은 전국 35개 지자체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결성한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3기 회장을 맡고 있다. 민 구청장은 문 대통령과의 인연을 묻는 질문에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 민 구청장은 28일 "사저 인연이 우리 사회를 얼마나 나락으로 떨어뜨렸는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잘 봤지 않나"면서 "다만 광주의 목소리를 전하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그리고 사회적경제처럼 우리미래를 좌우할 정책을 제안하는 공적 통로가 있다면 잘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승렬기자 srchoi@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당대표 시절이던 2015년 11월 광주 광산구 더불어락 노인복지관에서 민형배 구청장과 만나 사회적 경제 시스템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

더불어락 노인복지관 등 광산구 혁신정책 대선주자들 큰 관심

서울시와는 정책 협약 체결

정치인은 현장을 찾는다. 문제를 파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다른 경우도 있다. 사회 각 분야의 귀감이 될 만한 곳을 찾아 자신의 혁신적인 이미지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다. 정책적 선행성을 얻고자 하는 정치인들이 빼집없이 방문한 곳이 있다. 바로 광산구다. 자치와 복지 분야에서 새로운 모델을 지역에서 제시한 광산구의 사례가 중앙무대 정치인들의 이목을 끌었기 때문이다. 특히 더불어락 노인복지관이 많은 관심을 받았다. 가장 먼저 찾은 이는 안철수 후보였다. 그는 2012년 11월 더불어락 노인복지관을 방문했다. 그는 "어르신들이 복지 대상이 아니라 주체로 참여해 이룬 성과가 놀랍다"며 "이런 모델이 전국 각지에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015년 11월 이곳을 찾았다. 그는 이곳 노인들이 복지관 1층을 스스로 리모델링해 북카페를 만든 것을 시작으로 광주 1호 협동조합인 '더불어락 협동조합'을 설립한 사연, 광주시역 초등학교 교과서에 복지관 이야기가 실린 것까지 소상히 들었다. 아예 광산구와 정책협약을 맺은 사례도 있다. 19대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둔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 주인공. 박 시장은 올해 1월 11일 광산구를 찾아 민형배 구청장과 우수 정책사례 협약을 체결했다. 박 시장은 협약식에서 "정책 철학이 같아 서울시정과 광산구정은 닮아 있다"며 "서로의 혁신 정보를 공유해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청년 문제를 함께 해결하자"고 밝혔다. 대선 출마를 선언했던 남경필 경기 도지사도 지난 2월 1일 광산구를 찾았다. 남 지사는 민형배 광산구청장을 만나 "공유와 공동체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며 "당은 다르지만 같은 가치의 실현을 위해 협연할 일이 매우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미르샘메디컬센터 | 임대분양
나주 대표 랜드마크형빌딩

나주의 중심심장부에 건립된, 최초 메디컬센터 5월 입주임박!
시외버스터미널~남고문을 잇는 중심상권에 위치한 최고의 입지!

1F 767㎡ 약국입점확정, 커피전문점, 편의점, 이동통신대리점, 브랜드의류, 죽전문점, 대형전시장
2~5F 794㎡ 이비인후과, 내과, 피부과, 정형외과, 통증의학과, 신경외과, 가정의학과 등 전문병원 환경
6F 743㎡ 전문병원원 및 뷔페 레스토랑 등 대형연회장 환경

친철상담 | 첨단길잡이 공인중개사사무소 (광산구, 대표 이현민)
062-972-8845 · 010-3635-5800

24/35PY 분양

소촌동 모아드림 1,2차 | 온세계 아이조움

분양 전환 계약금 500만원

대출 70% OK! | 이자만 납부 OK! | 청약 통장 NO! | 즉시 입주 OK!

24PY: 방 3, 화장실 2, 주방, 거실
35PY: 방 3, 화장실 2, 주방, 거실

분양문의 (062) 610-9232